

2024

추석명절 가정예배(추도예배)

묵상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다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찬송가 429장)

다같이

- 1절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 2절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네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렵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 3절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 후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대표기도

담당자(뒷면참조)

성경봉독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같이

18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설 교

인도자(뒷면참조)

합심기도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대표기도 예문

사랑의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열매 맺는 계절인 가을에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족 모두가 세상의 기준이 아닌 말씀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옵소서. 이번 명절 기간 온 가족이 영적인 즐거움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 예문

범사에 감사하라! /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그 어느 때보다 높고 푸른 하늘을 볼 수 있고,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천국의 소망을 품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1) 감사한 일 앞에서 감사하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나 초막절 등과 같은 절기를 구별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날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들이었습니다. 감사한 일 앞에서 자신의 강함이나 잘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의 가정은 감사한 일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가정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 일상에서 감사하라!

한 단계 더 깊은 감사는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비록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내 곁에 계신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원 가슴에 손을 얹어 볼까요? 나의 심장을 지금도 뛰게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오늘도 새로운 호흡을 주신 분은 누구신가요? 오늘 아침에도 새 날을 주신 분은 누구신가요? 믿음의 가정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정입니다. 일상의 대화 속에서 감사가 고백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살전 5:18)

(3)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하라!

마지막 단계의 감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드러지는 감사입니다. 나의 생각이 어긋나고, 계획이 틀어질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드릴 수 있는 감사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가정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렘 29:11)

또한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믿고 선포하는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 106:1)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서 더욱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